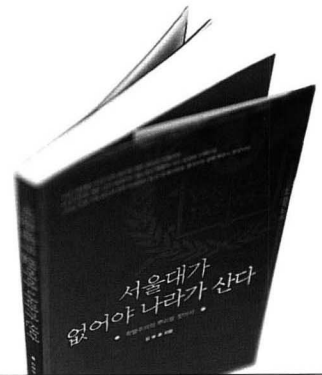


《서울대가 없어야 나라가 산다》 펴낸 김동훈 교수

학벌주의와의 외롭고 고단한 전쟁



김동훈 지음 | 더북 | 288쪽 | 값 9,500원

《서울대가 없어야 나라가 산다》의 저자 김동훈 교수를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. 그는 시민단체 <학벌 없는 사회 만들기> (www.goodbyehakbul.org)의 사무처장을 맡아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실천적인 시민운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이 책의 출간 역시 '운동'의 일환이다. 그는 이 의미심장한 책을 통해 '우리 사회에서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보다 더 심각하게 뻗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학벌에 따른 편견과 차별'이라고 지적한다. 그는 '특정 지역의 권력 독점보다 더 큰 문제가 학벌 패거리의 권력 싸움이 현상이다'라고 주장하면서 학벌주의의 타파야말로 나라가 바로 서는 길이라고 역설한다.

김 교수의 지적처럼 그가 벌이고 있는 학벌주의의 타파 운동은 만만한 운동이 아니다. 이미 우리 사회가, 학벌주의에 기반해 체계모니를 권 세력에 의해 견고하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다. '헌법 위에 정서법이 있다'는 말이 있듯이, 그는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학벌주의가 우리의 의식과 문화의 심층에 정서적으로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.

그는 이 책을 내기 전에 이미 《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》 《한국의 학벌,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》를 출간해 학벌주의 타파의 당위성을 피력한 바 있다. 이번 책은 전작들과 달리 학벌주의의 문화적, 정서적, 의식적 층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. 그에게서 직접 학벌주의의 타파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았다.

● 이 만만치 않은 운동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인가?

대학에 있다 보니까 학벌의 모순적이고 억압적인 폐해를 많이 느끼게 되었다.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20여 년 전 대학 4학년 때의 일이다. 그 시절에는 고등학교 3학년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 예비고사를 보았는데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누적 석차를 발표했다. 그리고 전국의 대학을 19등급으로 나누어 전 언론에 공표를 했다. 나는 이런 교육당국의 정책이 교권이나 인권을 유린하는 폭거라고 생각했다. 그때부터 학벌주의의 실체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것을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게 됐다.



《한국의 학벌,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?》

김동훈 지음 | 책세상 | 182쪽 | 값 4,900원

● 운동을 하다 보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,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?

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학벌주의 타파가 대의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큰 어려움은 없다. 다만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의 적대적인 방어논리에 부딪칠 때가 있다. 이들은 이 운동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위선이라거나 서울대 콤플렉스 때문이라거나, 심지어는 사회주의자라고 매도한다. 그때마다 좀 서운함을 느끼곤 한다.

● 책 속에서 학벌은 양반문화의 현대적 변용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, 양반들도 조선사회에서 일정 정도 순기능을 담당했던 것처럼 서울대 등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사회적 순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?

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. 하지만 내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전반적인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에 관한 것이다. 학벌주의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사회적 대우를 '전리품'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. 자신의 지위를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파악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에서 파악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 문제다.

● 이 책의 권말(卷末)을 보면 정치운동, 교육운동, 사회문화운동이라는 말로 학벌주의 타파 운동의 성격을 설명하기도 했는데 학벌주의 타파 운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?

나는 이 운동을 일종의 '계몽운동'이라고 생각한다.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계도하고 되찾는 운동이다.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받는 합리적인 사회를 나는 꿈꾼다.

● 이 책의 부제가 '학벌주의의 뿌리를 찾아서' 인데 이 책에 의하면 학벌주의의 뿌리로 봉건시대의 산물인 양반문화의 영향, 그리고 우리 민족 고유의 파당짓기, 그리고 출세욕, 성적과 석차에 대한 물신숭배 사상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. 그렇다면 이런 광범위한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운동의 외연

적 범위가 민족 개조론 같은 것으로 무한하게 넓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?

의식의 산물로서의 집단주의, 파당짓기, 양반문화, 물신숭배 사상 같은 것들을 일시에 해소하기는 매우 어렵다.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. 이 운동은 물론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실천적 운동인데, 그에 앞서 의식의 개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. 그래서, 이처럼 근본적으로 우리의 의식의 심층에 자리잡고 있는 문제를 짚고 넘어간 것이다.

● 서울대 송호근 교수의 주장처럼 우리 사회에는 열등한 사람과 우월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, 우월한 사람이 보다 더 사회 발전에 역할을 많이 하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는 건 민주주의의 사회에서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.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?

인간은 저마다 공동체를 위해 기여할 능력이 있다. 시대가 요구하는 고유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. 청소부는 청소부대로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그 역할에 충실하게 복무하는 것이 중요하다. 문제는 이런 지표가 학벌이라는 일방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진다는 데에 있다. 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반민주적인 것이다.

● 학벌주의 타파 운동을 벌이는 입장에서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.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주문하는지, 다른 집의 보편적인 부모들처럼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?

많이 받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때마다 참 대답하기 곤란하다.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사실 별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. 다른 부모들보다 공부에 대한 압박감을 덜어주고 아이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,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다.

● 끝으로 교육 서비스의 실제 소비자인 학부모, 교사,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?

학벌 없는 사회는 반드시 와야 하고 올 것이다. 무엇보다 우리의 희망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. **김동훈**

취재 김도연 기자 | 사진 박신우 기자